

건강한 계군관리에 관심 가져야...



이광교수(아칸소오대 가금학 교수)

△세계가금학회 아시아·태평양연합회 제5차 총회 및 학술발표회가 박람회기간중에 개최되어 많은 양계관련자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이때 발표차 내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셨는데 이 박사님의 개인적인 소개와 아울러 미국의 양계산업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광: 저는 미국 오칸소오 대학에서 가금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4년 서울농대 축산학과를 졸업한 후 '69년에 일리노이대학에서 가금영양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73년에 미시간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현재까지 아칸소오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미국은 양계산업이 매우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닭고기소비는 연

간 1인당 40kg대에 이르고 있는데 매년 소비가 증가하는 편이고, 계란은 콜레스테롤로 인하여 성인병에 대한 우려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미국도 농가수는 큰폭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대신 사육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육계도 계열화사업이 잘되어 있어 남부지방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사육을 하는 농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공이 가금분야인만큼 한국의 양계산업에 대해서도 하실 말씀이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과 비해 차이를 찾는다면 어떤 면이 있을까요?

이광: 농가의 규모나 소비시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제일 먼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생산성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해 한국의 양계산업은 생산성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생산성 문제는 어느 한 일면만 가지고는 분석이 어렵게 현실입니다. 한국은 종계로부터 사료원료까지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생산비가 상승하여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히려 수출국보다도 더 생산성이 높아야 최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에 보고 들은 소견으로는 우선 닭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다소 소홀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은 사료의 구입시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가격적면이라는 점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품질보다 가격을 비교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자기농장의 닭에게 필요한 사료구입이 안되어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을 우선시해서 구입하는 것은 농장규모가 커지고 합리적인 경영이 되면 차차 개선이 되리라고 보는데 원료

구매는 일단 제조업체에 맡기는 형태인데 원료가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광 : 미국은 옥수수 등을 쉽게 말하자면 이웃에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 전량 수입을 하는데 그 품질이 매우 다양합니다. 생산자단체나 배합사료제조업체들은 원료구매시 보다 철저한 품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선적하기 전에 사전 검사라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 최상의 원료구매가 되게끔 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무창계사의 사료에 있어서도 조단백 함량과 에너지수준을 고려해야지 무조건 가격만 싸다고 구매하는 것은 생산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점등관리도 대개 16~17시간을 주는데 14시간정도면 충분하다는 발표가 나왔고, 선진국에서는 실용화 단계에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자료가 없어 시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료 배합수준은 손색이 없지만 원료, 균형적인 영양수준섭취, 계군상태에 맞는 사료 공급에

대해 좀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의 양계산업에 대해 개선점이 있다면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광 : 계란유통에 있어 현실적인 감각을 잃지 않았나 느껴집니다. 계란은 위생과 신선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위생개념이 정착되기전에 특정 성분을 보강한 특수란위주로 유통이 되고 있어 상표화를 한다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지만 전체 계란소비를 고려할때 먼저 위생적으로 처리한 계란유통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교수님께서서는 지적해주시신 문제들이 양계인들의 관심이 모아지면 쉽게 해결이 되어 수입개방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큰 공헌을 하리라 믿어 집니다. 항상 바쁘시더라도 한국의 양계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화 편집부장)